

01 교회소식

영광의 주 부활하셨네~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과 주님을 만나 모든 삶에 참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는 김창민 교육전도사의 간증.

02 생명의 말씀

부활주일 특집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예수님처럼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한다면 상대에게 용기를 주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04 간증

“만민선교원 때부터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과 진리로 양육받아 주님의 향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게 된 김혜진 전도인의 간증.

# 만민뉴스

제630호 2014년 4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2014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기독교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 일컬을 정도로 ‘부활’은 믿음의 핵심 요소이다.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사역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희생과 눈물로 성도들이 영의 평준화를 이뤄 어느 때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넘친다. 자신을 희생하며 순교의 길까지 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신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며 마지막 때 목자와 함께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각오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월 20일 부활주일에 GCN 방송(www.gcnetv.org)을 통해 전 세계



1만 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부활절 감사예배와 성찬식을 갖는다.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부활’(마 28:5~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저녁예배 시에는 ‘큰 뜻’(요 6:53~5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성찬식을 집례한다.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섬김과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앞서 고난주간인 4월 18일 금요일예배 1부 시간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눈물’(마 22:37~4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2부 시간에는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270여 명이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 공연이 있었다.

한편,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성도들은 물론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남부구치소 등 관공서와 교회 주변 벤처타운, 상가, 노인정 등에 부활절 계란을 나눠 주며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

### “참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창민 교육전도사  
(만민중앙성결교회)



저는 어린 시절, 어려운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감추기 위해 더 밝게 행동했고, 인정받고자 열심히 공부해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시험 시간에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 답안지를 보여줘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파장이 컸던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지요. 그래서 믿고 따르던 학원 선생님(조승원 집사)에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열심히 우상을 섬겨왔고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절박해지니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일이 간단히 해결됐고 그 뒤 저는 학원 선생님을 따라 광주만민교회에 출석했지요. 처음에는 주일만 지키는 정도였는데 여러 사명을 맡으면서 믿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투성이인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만나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며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과 학업에 최선을 다해 2008년, 연세대학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축복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시작된 뒤 세상에 대한 동경이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술도 점차 입에 대기 시작했고, 더구나 과 부회장, 공대 단과대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등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자 마음을 세상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012년 1월 1일, 저는 목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산상기도 중인 당회장님께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전화로 천국 찬양을 부르실 때 제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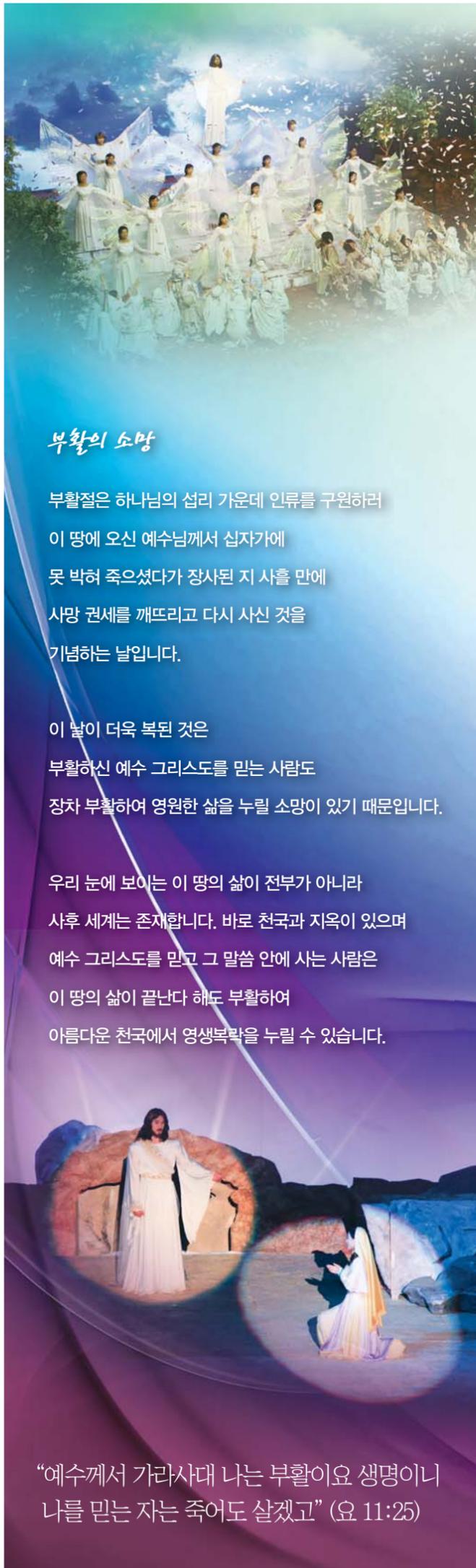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오렌지색 머리에 청바지 차림,

세상 모습 그대로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맞아 주셨고,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멈추지 않는 회개로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하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산상기도를 마치신 당회장님께서 “김창민, 오랜만이네.”라고 웃으시면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를 올렸고, 지금은 주의 종의 길을 가며 제가 받은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가 교회에 출석하는 축복까지 받았습시다. 어머니는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셨는데, MRI 촬영 결과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때 뇌동맥류(뇌동맥의 일부가 혹 모양으로 불룩해져 일단 터지면 10명 중 7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가 발견돼 어머니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를 놓지 않으시고 참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어머니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더욱 복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라 사후 세계는 존재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부활하여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 기획특집\_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아무 죄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한다면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씀의 의미**

흔히 허물은 그릇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둑질을 했을 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물을 덮어 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준다는 것은 단지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며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덮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인내하며 상대의 허물을 덮어 주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상대의 흠과 티를 드러내거나 없는 허물을 만들어 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리고 상대의 허물까지도 덮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2.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을 이루려면**

상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가만히 꿀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경상의 인물로는 마태복음 1장

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만약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도록 내놓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곁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허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천사를 통해 알려 주셨지요(마 1:20).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상대에게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배신감을 느끼며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 주며 이해하려는 자세만 되어 있어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14절에 “누가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한 대로 믿음의 형제 사이에는 서로 다투어 허물을 드러냄으로 불의한 자가 되느니 차라리 누명을 쓰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악을 행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기에 얼마든지 악한 자들의 음모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시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와 이방 나라의 임금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해도 용서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용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혹여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어떤 해를 입었다면 두고 두고 마음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지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1만여 지·협력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예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요. 하루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하체를 보지 않았지요(창 9:23). 이처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기게 됩니다.

흠과 점과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를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영혼들의 아픈 곳을 싸매 주셨습니다. 죄인의 허물을 보면 덮어 주시며 돌이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부모나 형제, 부부는 물론이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물을 덮어 주라 하니 무조건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옳을까요? 허물은 곧 죄요,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 상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덮어 놓고 모른 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 허

물의 경중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랑의 권면이나 훈계, 책망 등 알맞은 방법으로 상대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다 빼낸 사람만이 남의 티를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해도 사랑을 가지고 권면이나 책망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가까이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5장 19-2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진리를 떠난 사람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고 또한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했으니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상대가 진리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이해해 주는 차원을 넘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썩어질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이지요. 영으로 살리는 생명이지요.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취 주는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는 마음이었지요(요 13:37; 눅 22:33).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고백과는 달리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요 13:38).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지요.

얼마 후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떠올렸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신이 주를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당부의 말씀만 해 주신 일들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감당치 못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또다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 대한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더한 죄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해 내신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물론, 더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이지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으로서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이러한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은 강하고 확실하게 상대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허물을 발견했다면 먼저는 요셉처럼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꿇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두 아들처럼 상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선한 말로 권면하거나 책망해 상대를 감동시키며 진리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줘야 하지요.

그리하여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라 하니 무조건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이 옳을까요?**

**허물은 곧 죄요,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 상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덮어 놓고 모른 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의 경중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랑의 권면이나 훈계, 책망 등 알맞은 방법으로 상대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4.20~4.26

4 April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1차 영혼육 8/2차 영혼육 1-4
- 마음발을 개간하자 5-7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창세기 강해 101-102
- 천국 47-50 • 사랑장 9-13
- 부활(2013) • 요한일서 강해 1-3
- 우리 삶의 등불 13

**GCN TV 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이수진 목사)
- 좋은 중심 만들기(이미경 목사)
- 말씀, 기도(이화선 목사)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신동호 목사)
- MIS강의 7/ 열재앙 1(정구영 목사)
- 역사사지(교경아 교육전도사)
-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아가였으니(김영홍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4
- 옛날 옛적에 2
- 만민 지킴이 2
- 모두 드려요 4
- 흥겨운 소리 2
- 알콩달콩 어버님 울동 23

**예능 프로그램**

- 찬양드려요 2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3,15,17
- 향기22-23 • English 12
- 뷰티풀 라이프 1

**해외성회 프로그램**

- 페루연합대성회 2
- 회상 1, 5

Spring GCN 방송

1577-2073

# “저의 작은 행함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는 부모님은 제가 네 살때부터 만민선교원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만민선교원은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며 믿음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곳이지요.

저는 4년간 만민선교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 목자의 사랑으로

####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술선수범했기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기도를 쉬게 됐지요. 찬양보다는 가요 부르기를 좋아했고, 웹 서핑과 TV 드라마 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니 은사집회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예배 후 당회장님께서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집회를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무엇을 고민하며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학용품 등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은 구제해 주셨지요. 아울러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꼭 함께 가자”고 간곡히 눈물로 부탁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뜨거운 사랑에 학생들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웠으며, 신앙생활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 또한 생명 다해 양 떼를 사랑하시는 목자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지요.

### 진실을 담대히 말하는

#### 의로운 행함이 기억된 바 되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



부모와 함께한 김혜진 전도인 (17년선교회, 20세)

회에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선생님은 “혜진이는 어느 교회 다니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만민중앙교회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선생님은 “혜진이가 다니는 교회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교회니까 안 다니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목자에 대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전력하시는 당회장님이시기에 제 마음은 견

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 옆 반에 있는 교회 친구 최주연 자매와 함께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교회에 와 보셨어요? 당회장님을 보셨나요? 머리카락이 흰색이예요, 검은색이예요? 안경은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머리카락은 긴가요, 짧은가요?”

제가 펄펄 울면서 선생님에게 여쭈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시며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생님! 잘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판단 정죄하시

면 어떡해요.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성경에 판단 정죄하라고 쓰여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지요.

그러자 선생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들은 게 뭐냐면...”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교실로 돌아왔지요. 며칠 후, 성적표를 받았는데 평가란에 ‘당당하고 할 말을 할 줄 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평소 선생님을 잘 섬기던 제가 그처럼 울면서 말씀드린 것이 처음이라 선생님도 미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하나님과 주님, 목자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 주의 종이란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부름받아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요.

마음속에 있는 험기, 미움·시기·질투, 불편함·서운함의 감정, 거짓과 속이는 마음, 판단, 변개하는 마음, 간음, 사심·탐심·욕심, 배신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성질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마음을 너무 닦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에 남아 있는 악이 너무 싫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기에 더욱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 가운데 선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틈탈 때마다 선한 생각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 더 깊은 마음의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개월 만에 크게 영적 성장을 이루 지난 3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깊은 선과 사랑을 닦아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달려갑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곡읍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강동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서울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